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천년을 하루같이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18절

Tag:

8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벤 후3:8-18)

시간 이야기

시간 개념은 4차원에 속해있다. 아인슈타인 이후 과학자들이 굳이 물리학의 개념에 구겨 넣으려고 함. 그래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등, 시간은 중력에 의해서 상대적이라는 등 말이 많다. (중력이 강할 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지구에서는 1cm 차이로 10^{-18} 초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제는 양자역학 시대이니만큼, 시간도 양자로 취급된다.(시간 알갱이) 시간을 물리적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이다.(이것은 양자역학적으로도 진실이다.) 오직 영원한 세계에서만 이 시간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조차 시간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물리적으로는 발생이 늦추어질 수는 있다.-블랙홀 주위를 맴돌다 돌아온 사람-인터스텔라. 주인공의 세포가 발생이 늦어졌을 뿐, 그가 다른 사람보다 수명이 더 길어진 것은 아님.) 그 시점은 우주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이다.

분명히 시간은 4차원에 속한 영역이다. 보통 3차원은 물리적인 영역이라 함. (현재는 시간을 3차원에 포함된 개념으로 여기는 것과 4차원으로 여기는 것 사이에 과학적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듯함.) 기독교적으로는 4차원부터는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한 영역으로 간주함. 영적인 영역으로. 시간은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4 주의 목전(주님 편이 관찰로서는)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시90:4)

(이 말씀을 양자역학적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관찰자의 시각 때문에 빛은 파동에서 입자가 된다? 관찰자의 역학이 곧 이런 차이를 만

들어 낸다.)

시간의 관측자가 하나님일 경우, 시간은 물리적 영역이 아닌, 영적인 영역이 된다. 우리의 시간은 천년이라도 밤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꾸로, 우리가 우리 시간 개념으로 계산하기에는 수십억광년이 걸렸을 것 같은 우주의 시간도 역시 우주적 관측에 의하면 하루쯤 지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타임머신 개념은 아무래도 지나친 공상과학 소설일 뿐이다. 즉,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도 결코 과거로 가서서 역사의 일부분을 고쳐 놓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 (과거는 곧바로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마치 필름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 다만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것.)

(? 작년에는 2015년 9월 14일에 두 개의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중력파가 우주에 퍼져 나가는 것을 관측했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무려 13억광년 전에 있었던 일이 관측되었다 한다.)

(보이저1호, 182억Km 달려(태양빛은 17시간 걸림.) 34년9개월 날아가 태양계를 2012년 벗어나, 2025년 핵전지가 동이난다. 50억년 정도 은하수 중심을 향해 날아갈 것으로 예측.)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종말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히 물리적 변화가 우주에 일어난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상대성이론이나, 양자역학 이론들이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성경은 첫 번째 우주적 종말로 인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이 바뀌었고, 인간의 수명은 1/10로 단축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물리학자들과 수학자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될 것 같다.

결국 시간에 쫓기는 쪽은 우리가다. 우리는 원래 한 천년 살아 본 다음에 한 세월 살았구나고 느끼는 정도로 피조되었는데, 1/10의 세월, 기껏 한 백년 산다. 그 동안 인생의 모든 경험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제 겨우 6천년 정도 살아왔을 뿐이다. 아담의 나이(930년)로 따진다면 6~7명의 아담이 살아온 시간 정도이다.

한 천년 살면 모든 면에 박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왕국은 서넛 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에 해답을 알고 있고, 능력도 대단해 질 것 같고, 살아가는 지혜도 어마어마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고작 몇 십년 살면서 공부하고, 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도 낳고,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다 해야 한다. 병이라도 걸리면 일찍 죽든지 몇 년을 고생하든지 한다. 그러니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충분히 실험하지 못한다. 머뭇거릴 수 없고, 허송할 수 없고, 원망할 수 없다.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겨우 몇 시간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을 내 놓아야 한다. 어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 세월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쇼 묘비에 새겨진 글;

“우물쭈물하다가 언젠가 내 이럴 줄 알았단니까?”

“I knew if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촉박하다.

만드시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날이 오고, 우리에게는 계산하는

날이 온다. 우리가 했던 말들, 생각들, 행동들, 경력이나, 열매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 질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의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학위나, 재능이나, 몸매나, 미모나, 지위 따위는 제 값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 자녀들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될 것이다.)

11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자.

경건생활에 관한 열매가 많도록 계획을 새롭게 하자. 미래를 위한 현재가 되도록. 그러나 미래가 현재를 변화시키도록 하자.(ex, 김인식 장로)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을 소망하자. 왜냐면 그래야 내 삶이 미래지향적으로, 더 나은 미래로(현재의 변화가 중요), 더 긍정적인 삶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소망이 현재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내가 잘 살려고, 내가 더 젊어지려고,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바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경건에 대한 소망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더 잘 사는 것파, 내가 더 젊어지는 것파, 내가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 세속을 향해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면 세속적인 복들도 덩달아 얻게 된다. 이것을 잊지 말라. 대신 우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께서 더딘 것 같은 이유는 주께서 게으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배려임을 잊지 말라.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기독교적 전통 가치를 귀중히 여기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자.

기독교적 전통 가치가 가장 좋다. 가장 만족스럽다. 가장 행복하다.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복되다. 다만, 그 가치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1/10의 세월을 사는 동안, 십계명을 잘 지키고, 그것으로 복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교회생활을 통해서 보람을 누리고, 가정 생활과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복을 누리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우리의 통일전략 성경: 마태복음 10장 5-23절

Tag:

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
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
이라

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
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
하라

17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

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북한 고위 간부의 전략

-좌파의 전략, 연방제, 공수처를 통한 반대파 숙청, 선거법 조작을 통한 헌법개정,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를 통한 중국과의 경제 공동전선 구축. 자기들이 평평거리는 세상 구축. -국민 대 다수는 탈 한국.

-김정은의 전략. 자기가 왕 되는 것. 남한의 부귀를 차지하는 것.

-문재인의 전략. 자기가 대통령 되는 것.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 노동단체의 간부들은 첫 번째 숙청 대상이 될 것. 토사구팽.

-미국의 전략. 인도 태평양 시대를 열어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을 유지한다. 군사력을 통해서 패권도 유지하고, 방위비를 걷어 지위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음. (한국인 미군양성이 한 방안이 될 것임. 순환배치 비용 없음.)

-한국교회의 전략. 현재로서는 아무런 전략이 없음. 답도 없음. 오직 성령으로.

- 각자의 일터에서 각개전투하라!
- 복음에 충실하고, 교회를 세우라.
- 신학을 새롭게 하라.(구시대적 종말론이 걸림돌, 세속주의가 걸림돌, 일터신학이 대안. 비즈니스 총회가 대안.)
- 대형교회+소형교회가 대안.
- 브랜드교회가 대안.
- 일터교회가 대안.